

이재명 후보, 정치OTT 서비스 <재밍> 누적이용자 100만 돌파!

-사상 첫 정치OTT '재밍', 초대박 흥행 가도

-<재밍>, 국민 누구나 '재미있게, 놀고, 즐기는' 이재명식 정치 놀이터

-21일부터 본선 첫 캠페인 '앞으로 캠페인'도 시작

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(홍보소통본부)이 선보인 사상 첫 정치OTT 서비스 플랫폼 <재밍> www.Jaeming.com이 오픈 5일 만(19일 현재 기준)에 누적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.

<재밍>은 '이재명과 함께 노는 재미가 계속되는 곳'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, 초대박 흥행 가도가 이어지면서 이름에 걸맞게 '이재명식 정치 놀이터' 가 되고 있다.

특히 <재밍>의 '잼드라이브', '잼스텔라' 등 게임페이지가 있는 참여잼 페이지 방문자 수가 6만 3천여 회를 기록하면서 유권자 사이에서 인기몰이하며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다. 뿐만 아니라 250여개 방대한 영상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 플랫폼 <재밍>은 재미와 완성도까지 높아 타 후보 캠프와는 절대 비교 불가하다는 평가다.

김영희C센터(홍보소통본부)는 더 나은 <재밍>으로 국민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고 전국민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향한 파란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./끝